“예수재, 조선 중기 칠칠재 형식 설행”

이종수 순천대 교수 ‘불교학연구’서 주장

고려末 수륙재, 칠칠재로 정착
조선 왕실도 국행수륙재 봉행
차츰 폐지되며 예수재 등장해
조선 중기 칠칠재로 설행 · 전래
“韓불교만의 독창 의식”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8년 서울 봉은사에서 설행된 생전예수재의 모습. 현재 봉은사는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생전예수재는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의식 중 하나다. 49재와 수륙재는 망자와 무주고혼을 위한 불교 의식이지만 생전예수재는 산 사람을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그간 생전예수재는 고려시대 설행된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조선 중기 이후 칠칠재 형태로 설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불교학연구〉제61호에 게재한 논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의미’에서 생전예수재의 성립시기와 개념을 재검토하고 불교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우선 이 교수는 문헌들을 통해 수륙재 정착과 생전예수재의 분화를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수륙재와 관련해 가장 이른 기록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의 2번째 조항에서 광종대의 지나친 불사를 비판하며 이를 축소하고 수륙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의 칠칠재 형식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진정국사 천책이 남긴 ‘수륙재소’에 보면 세 번에 걸쳐 설행했다고 한다”며 “당시 수륙재의 방법과 절차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경전에 의거해 거행했음으로 최사겸이 가져왔다고 하는 〈수륙의문〉에 따라 설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시작된 수륙재는 공민왕비 노국공주가 사망한 뒤 나옹혜근이 국행수륙재를 주관할 정도로 왕실의 상례로 정착될 정도로 성행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국가적 불교행사는 차츰 폐지되거나 축소됐지만 수륙재는 〈경국대전〉에 면세전으로서 ‘국행수륙전’이 인정되며 계속 설행됐다.

조선시대 왕실의 수륙재는 무주고혼을 위한 천도재이자 망자를 위한 제례로서 봉행됐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폐지됐다. 다만 민간에서는 기양의례(祈禳儀禮)로서 수륙재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행됐다.

이 교수는 왕실의례로서의 수륙재가 폐지되는 시기에 예수재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려시대에 이미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 전래 · 간행됐지만 명종대 이전까지 예수재가 독립적으로 설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허응보우가 청평사에서 예수재를 설행하고 ‘예수시왕재소’를 남긴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16세기 발행됐던 의식집의 서문 등을 분석하고 예수재가 조선 중기 이후 수륙재에서 분화돼 설행되기 시작했음을 주장했다. 1721년 중흥사에서 간행된 〈천지양명수륙재의범음산보집〉 서문에서 석실명안(1646~1710)은 서문에서 “지리산 승려 지환이 당시 수륙재 의식문을 산삭해 산보집을 편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환은 당시 유통되던 소례 · 대례 · 예수문 · 지반문 · 자기문 등의 의식문을 산보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지환이 수륙재 의식문을 산보하면서 참고한 것 중에 예수재 의식문이 포함됐다. 이는 수륙재와 예수재 의식의 유사성을 의미한다”면서 “수륙재가 고려시대부터 설행됐음을 비춰보면 조선 중기부터 사례가 확인되는 예수재는 수륙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수륙재와 예수재가 칠칠재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도 조선시대 수륙재와 예수재 전개 및 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칠칠재로서 예수재의 설립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이미 명맥이 끊어졌던 예수재가 조선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성립됨으로써 조선불교만의 독창적인 의식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불교학연구〉 제61호 특집 ‘조선시대 불교 심성과 세속적 융합’에 게재된 것으로 최종석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의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불교’와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조선 후기 불교와 민간 신앙의 공존 양상’도 함께 수록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3월부터 심사해 선정

국가무형 이수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총 52건으로, 불교 관련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박찬수, 전수교육학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임석환)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가 포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 · 문화 기반 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전각을 망라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의 전각〉 발간

박물관 신축기념으로 출간
가람배치 · 역사적 가치 소개

금정총림 범어사의 전각들의 역사 · 건축학적 가치를 망라한 도록이 제작 · 발간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최근 소장유물도록Ⅱ 〈범어사의 전각〉을 발간했다. 이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새롭게 건립되는 것을 기념해 발간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제작된 〈범어사의 전적〉에 이은 두 번째 도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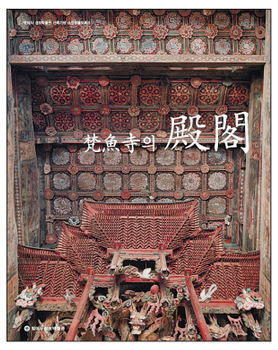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대부분의 전각이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당시 크게 소실됐다. 이후 많은 조선시대 고승들에 의해 중창됐으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도록은 범어사 전각들의 역사 · 문화 · 예술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범어사의 전각〉은 총 6부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부 범어사의 역사’에서는 전해져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 범어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2부 가람배치’에서는 중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한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담고 있다.

‘제3부 상단의 전각’에서는 상 · 중 · 하단으로 나눠진 범어사의 가람배치에서 상단의 전각인 대웅전, 관음전, 조사전, 팔상독성나한전, 지장전, 산령각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제4부 중단의 전각’ 범어사 중단 전각인 미륵전, 비로전, 심검당, 종루, 보제루를, ‘제5부 하단의 전각’에서는 하단의 삼문(三門)인 조계문과 천왕문, 불이문까지 범어사로 들어오기 위한 세 문에 대한 설명한다.

‘제6부 선원과 요사’에서는 범어사 역대 고승들이 지내 온 선원과 요사인 원응방 · 청풍당 · 안심료 · 함흥당 · 해행당 · 침계료를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찰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으로 종교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쉼 없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이번 도록에서는 사찰이라는 공간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등 방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도록 발간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1학기 연수생 모집

2월 21일까지 심화 · 기본과정
조계종 스님은 수강료 면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가 2020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한문불전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로 매학기 마다 15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로 이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 강좌 가운데 한 과목 이상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기본과정은 △〈아함경〉(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화, 원과 스님) △〈논어〉(수, 공근식) △〈구사론〉(목, 박인성) △〈삼국유사〉(금, 박해당) 강의가 이뤄진다. 심화과정은 △〈대승의장〉(월, 박해당) △〈화엄현담〉(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선어록〉(금, 문광 스님) 강의로 구성돼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1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2월 22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5명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회 44기 특설강좌 모집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신성수)에서는 2020년 44기 박물관 특설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44기 박물관 특설강좌에서는 화요반과 목요반 각 200명씩 총 400명의 회원을 모집한다. 1년간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분야별 최고의 석학 100여 명에게 배울 수 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7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02)2077-9790~3

신성민 기자

